



4면
덕진공원 연화교
40년 만에 '세 얼굴'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음 10월 19일) 제2671호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형 뉴딜’ 성공 힘 모은다

도-시군 협의체 출범... 정보공유·협력체계 구축 지역 대표사업 발굴, 종합계획 수립 등 방향 논의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전북형 뉴딜’의 정보공유와 협력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2일 최훈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도와 시군 협의체 Kick-off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전북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행정부지사와 시군 부단체장이 도-시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시군에서 전담부서를 구성해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뉴딜 전담부서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균형뉴딜 사업과 시군 간 협업사업 등을 발굴해 규제 혁신 및 제도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할 예정이다.
향후 협의체는 건담회 형식으로 분기별 1회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운영한다.
이날 열린 도-시군협의체 회의에서는 시군 추진체계 구성과 시군별 종합계획 수립 추진 현황 대표사업 공유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전북도는 시군에 뉴딜 전담부서 또는 전담 인력 확보를 요청했다.
이에, 각 시군은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를 갖추고 일부 시군에서는 내년에 상설 조직 구성이나 전담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전북도와 뜻을 함께했다
이와 함께, 도는 12월 중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시군에서도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그 내용을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에 반영해 전 시군에 뉴딜 확산을 공고히 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날 각 시군에서 발굴한 대표사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있었다.
도는 각 시군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력관계를 유지, 국

가예산 확보 및 중장기적 사업보완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안전망에 대한 시군별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순창군은 그린바이오 신소재 원천기술 개발사업을 제안했다.

농생명 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효소제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5년간 100억원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창군은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 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을 제안했다.
360억원의 사업비로 야외학습장(갯골 관찰로, 생태습지 관찰데크), 일몰경 연계 가로 데크정장대 및 생태공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주시는 J-디지털 교육밸리 구축사업을 발굴했으며, 사업비는 163억여

원으로 디지털전환 시대의 핵심기술인 AI와 블록체인 등 SW분야의 전문인력 수요 부족에 따른 실무형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전북형 뉴딜의 성과를 적시에 이뤄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와 시군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기후위기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업을 시군과 함께 발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아개동무하며 시험실 배치도 바라보는 학부모와 수험생’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2일 전주 성심여자고등학교에 방문한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실 배치도를 살펴보고 있다.

‘전북에서 1년 동안 살아가기’ 귀농·귀촌 임시 거주지 확대

전북도, 내년 82억원 들여 '2만명 유치 프로젝트' 나서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 조성 등으로 활기 넘치는 농촌 만들기에 전북도가 앞장선다.
도는 내년에 약 82억 원을 투자해 귀농·귀촌인 2만명 유치 프로젝트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조성, 문화예술인 생활마을 살아가기, 귀농·귀촌 정착지원단 운영 등 전북도민의 특화된 귀농·귀촌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을환경화와 재능기부 활동, 귀농·귀촌 힐링캠프, 귀농·귀촌사례 영상 제작, 청년 창업캠프 등 시군 여건에 맞는 상향식 자율사업을 확대한다.
우선, 내년도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책 중 눈에 띄는 점은 임시 거주시설의 확대다.
그간 귀농·귀촌 초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주거 및 영농기술의 부족이었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 가족과 함께 머물며 주거지를 찾고 영농기술과 농업·농촌 정보 습득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새로 착공하는 임시 거주시설은 체재형 가족살농장 1개소, 게스트하우스 1개소, 귀농의 집 17동이다.
이로써 올해와 지난해부터 조성 중인 임시 거주시설은 체재형 가족살농

농장 12개소, 게스트하우스 8개소, 귀농인의 집 143동이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도 자체 특화사업으로 조성해 운영 중인 체재형 가족살농장은 1년 동안 영농 교육과 더불어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융화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매년 70% 이상이 넘는 정착률을 나타내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까지 7개 시군 7개소에서 운영(익산 1, 남원 1, 완주 1, 무주 1, 순창 1, 고창 1, 부안 1) 중인 체재형 가족살농장을 내년에는 4개 시군 5개소(정읍 1, 김제 1, 장수 1, 임실 2)를 추가로 조성해 총 12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체재형 가족살농장의 입주 시기와 입주자 조건 등 세부 사항은 시군별로 달라, 입주를 희망하는 도민들은 시군 관련 부서에 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전북도는 단기(1~5일) 거주하며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5개소(남원 1, 완주 1, 진안 1, 무주 1, 고창 1)와 장기(1년 내외) 거주하며 농업·농촌의 정보 습득 후 귀농할 수 있는 임시 거처인 ‘귀농인의 집’ 126동을 운영 중이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내년에 우리 도민의 특화된 귀농·귀촌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귀농·귀촌인이 지역주민과 융화하면서 잘 정착할 수 있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보건소의 일상 업무를 전면 중단한다.
전주시보건소는 3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진료와 제증명, 각종 프로그램 등 대면업무를 전면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다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은 지속되며, 접종 관련 문의

“확진자 급증... 코로나 방역 총력”

전주시 보건소, 오늘부터 일상 업무 전면 중단

는 전화(063-281-6200, 6251)로 안내 받을 수 있다.
보건소의 업무 중단 결정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주의 확진자가 94명에 달하는 등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는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일제 검사 7,890건을 포함해 총 3만7,628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상황에서 방역 인력을 더욱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보건소는 지금까지 역학조사반 10

개조를 편성에 신속한 조사를 통해 추가 접촉자를 조기에 차단하고, 선별진료소를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해 왔다.
이런 가운데 수능과 연말을 맞아 대우행 시기가 올 경우 시청 소속 인력을 지원받아 역학조사반을 10개에서 20개로, 선별진료 부스를 3개에서 13개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통한 신속한 접촉자 파

악과 선별검사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보건소 업무를 잠정 중단한 데에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며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보건소 코로나 상황실(063-281-6341 ~ 4)로 전화하면 된다.
/김윤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 손씻기
-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